

축구전쟁 서막

“잠은 다 잤네”

전 세계 축구팬의 시선을 사로잡을 최고의 축구 축제 월드컵이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2014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은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13일 오전 5시(한국시간) 개최국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930년 우루과이 대회를 시작으로 20회째를 맞은 이번 월드컵은 통산 최다 우승국(5회)인 '삼바 축구'의 본고장 브라질 12개 도시에서 열려 지구촌 열광의 도가니에 몰아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수놓을 '별들의 향연'

브라질을 빛낼 최고의 스타로는 단연 2013 발롱도르 수상자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가장 먼저 언급된다.

호날두는 올해 1월 메시를 제치고 발롱도르를 수상했고, 2013-2014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는 득점왕(31골)에 올라 역시 메시를 앞질렀다. 또 고국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함께하며 그야말로 최고의 해를 보냈다.

하지만 최근 무릎 건염 때문에 평가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몸 상태가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어 호날두가 브라질에서 멋진 한 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에 발롱도르를 받은 선수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 없다는 '슬픈 징크스'는 호날두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호날두 외에 네이마르, 메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루이스 수아레스(우루과이) 등도 '최고의 별' 자리를 다툰 전망이다.

◇초반 '빅매치' 준비

가장 먼저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경기는 주최국 브라질과 크로아티아가 13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5시 브라질 상파울루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치르는 개막전이다. 우승후보 1순위로 브라질이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를 맞아 고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막전과 달리 14일 오전 4시 열리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B조 첫 경기는 무계감이 전혀 다른 판이다. 2010 남아공월드컵 우승국인 스페인과 준우승국 네덜란드의 '리턴 매치'이기 때문이다. 우승 당시 전열을 거의 그대로 브라질로 옮겨온 스페인과 '복수혈전'을 노리는 네덜란드의 팽팽한 맞대결이 예상된다.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에는 '죽음의 조' D조에 속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피할 수 없는 일전이 이어진다. 축구 중가 잉글랜드와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의 대결은 쉽게 목격하기 어려운 최고의 빅매치 중 하나다. 이들은 차후 같은 조에 속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첫 경기에서부터 반드시 승점을 쌓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영원한 우승후보', '전차군단' 등 화려한 수식어를 자랑하는 독일은 17일 오전 1시 포르투갈과 격돌한다.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가 예상되는 포르투갈로서는 호날두가 '믿는 구석'이다. 또 다른 우승후보 아르헨티나는 16일 오전 7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상대한다.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를 필두로 한 아르헨티나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우승팀 맨체스터시티의 볼카이 공격수 에딘 제코가 버티는 보스니아도 만만찮은 전력을 자랑한다.

◇클로제·카시야스 '전설이 되리'

독일 '헤딩 마신' 미로슬라프 클로제는 이번 대회에서 한 골만 터뜨리면 호나우두(브라질·은퇴)가 보유한 월드컵 개인 통산 최다 득점인 15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세계 최고 수문장 중 하나인 이케르 카시야스(스페인)는 클린시트(무실점 경기) 기록과 무패 기록 경신을 바라본다. 월드컵 본선 통산 최다 클린시트 기록은 10차례인데, 카시야스는 7차례를 기록 중이다. 카시야스는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월드컵 챔피언(이탈리아)이 보유한 본선 연속 무패 기록(517분)도 넘어서게 된다. 현재 카시야스의 기록은 433분이다. /연합뉴스

내일 새벽 3시 월드컵 개막식...한달간 열전 한국, 18일 오전 7시 러시아와 첫 경기



호날두



메시

“이게 야구냐”... 팬들 인내심 바닥



김진우

“이게 야구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잇따른 졸전에 KIA 타이거즈의 팬심이 폭발하고 있다.

극심한 타고투저라고는 하지만 유난한 KIA의 2014시즌이다. 속출하고 있는 핸드볼 스코어, 그 내용도 충격적이다.

지난 5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5시간13분에 걸친 연장 혈투를 하며 내상을 입었던 KIA는 11일 무더운 날씨에 팬들의 원성을 살 만한 야구를 했다.

한화 선발 클레이와 KIA 선발 김병현이 각각 1.1이닝 6실점, 2.2이닝 7실점(6자책)으로 일찍 무너지면서 심상치 않았던 분위기. 불펜 가용 자원이 모두 투입됐고 선발 김진우까지 등판을 자처하는 등 양팀은 주간 첫 경기에 18명의 투수를 쏟아부었다.

결과는 9회 3점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KIA의 15-16 재역전패. 이날 KIA는 프로야구 한 경기 최다 3루타(5개) 기록을 갈아치웠고, 이범호의 스리런과 이종환의 대타 투런포까지 보여줬지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방어율 6.30...KIA, 답이 없다

송은범 부상, 김병현·김진우 등 부진

선발 기록 심하고 불펜 체력소모 커

매 경기 핸드볼 스코어·역전패 속출

빠른 투수 교체와 조기 투입된 아센시오의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뒷심 싸움에서 밀렸다. 여기에 완벽지 못한 김진우의 구원 실패로 김진우의 투입은 최악의 수가 되고 말았다.

이 경기로 KIA의 평균자책점은 6.30까지 뛰어올랐다. 한화(6.02), 넥센(6.05)을 앞지르며 최하위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출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팀 상황이다. KIA는 11일 제구 난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승혁을 2군으로 내리고 박경태를 1군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박경태도 기록이 심한

만큼 불펜 고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발진 구성에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송은범의 부상 속 김병현을 시험가동했던 선동열 감독은 다시 한번 김병현을 선발로 내세우겠다고 언급했다.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마땅한 대체 자원도 없다. 김진우도 이름에 어울리는 활약을 해주지 못하면서 양현종 홀로 버티고 있는 모양새. '극과극'의 피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예측불허의 비상상황이 계속되면서 근군이 불펜을 지탱하고 있는 김태영·최영필 베테랑들의 체력 소모도 크다. 마운드 부진 속 야수진까지 지친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선동열 감독, 근시안적 운영으로 위기 탈출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구단 그리고 2% 부족한 승부근성과 실력의 선수들.

반복되는 졸전에 팬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성난 팬심이 벼랑 끝에 선 KIA를 주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아센시오